

삼일교회 4대 지향점

- Making Disciples**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 Preparing Next-generation** 청년세대를 일으키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Mission Work** 선교와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 Serving Neighborhood** 섬김과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집회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삼일교회 B관 2층	영아세잇부(1~2세)	1부: 오전 10:30	B관 405호
	2부: 오전 10:30 (2부 영어통역 3층)		영아세썩부(3세)	2부: 오후 1:30	B관 404호
	3부: 정오 12:00 (3부 중국어통역 3층)		유아소망부(4세)	1부: 오전 10:20	B관 703호
	4부: 오후 1:30		유아믿음부(5세)	2부: 오후 1:30	B관 401호
	5부: 오후 3:00 (5부 일본어통역 3층)		유치부(6,7세)	오전 10:10	7층 중예배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유년1부예배	오전 10:30	굿네이버스3층
주일 저녁예배	7부: 오후 7:00		유년2부예배	오전 10:30	굿네이버스4층
수요일예배	1부: 오전 11:00		초등부예배	오전 10:30	B관 1층 소예배실
	2부: 오후 7:30	삼일교회 B관 2층	소년부예배	오전 10:30	C관 5층
금요일아기교회	오후 10: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고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3층
	2부: 오전 6:30		영어예배	오후 1:30	B관 504호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C관 1층 새가족부실
			리더교육	토 오후 5:00	B관 2층

1월 예배봉사위원	1월 대표 기도 순서	봉헌위원
		1부 박동선 집사
	1부	2부 김희석 집사
	2부 윤옥엽 집사	3부 이형우 집사
	3부 이동혁 집사	4부 장석면 집사
	1월 1주 윤옥엽 집사	5부 박상래 집사
	1월 2주 박신찬 장로	저녁예배 이형우 집사
	1월 3주 남재희 집사	
	1월 4주 장구경 장로	

교회안내

B관	배다나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씨를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70-4264-9210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송태근	원로장로	이광영	010-5474-7954	
		장로	이대규	010-8869-1702	
행정	강병희목사	010-9903-7198	박신찬	017-359-3787	
새가족부	하근태목사	010-6275-1368	나원주	010-5385-4274	
수도권선교	강종욱목사	010-2546-7494	장구경	010-8702-4369	
일본선교	박두진목사	010-7310-3103	김경준	010-5342-8911	
P.O.P	전영훈목사	010-4217-2215	주병욱	010-4231-2902	
새내기	이익주목사	010-8769-0191			
주일학교	교육위원장	우상현목사	010-2405-4525	지휘자/반주자	A 그룹 이근영 / 이다정
	영아세잇부	이현덕전도사	010-2842-5769	B 그룹 박윤진 / 김다혜라	
	영아세썩부	박소금전도사	010-8431-3379	C 그룹 윤원준 / 김유리	
	유아소망부	전용희전도사	010-5015-7341	D 그룹 권경란 / 조 진	
	유아믿음부	조혜정전도사	010-4691-8622	E 그룹 김부자 / 김상원	
	유치부	이지혜전도사	010-5061-2880	시온 박사은 / 서규리	
	유년 1부	최강현전도사	010-9443-0753	저녁 소찬선 / 박신영	
	유년 2부	최지원전도사	010-3243-9981	수요 1 김현정 / 김주휘	
	초등부	박상선전도사	010-3777-6239	수요 2 최대승 / 이주호	
	소년부	이규성강도사	010-3101-1673		
직원	행정실장	황새원	010-4233-0688	행정실장	황새원 010-4233-0688
	서무	김진경	010-3056-5901	서무	김진경 010-3056-5901
	회계	이선주	010-6449-2241	회계	이선주 010-6449-2241
	총무	위철	010-3437-7939	총무	위철 010-3437-7939
	관리 1	송요해	010-2001-4458	관리 1	송요해 010-2001-4458
	관리 2	전덕산	010-3861-4521	관리 2	전덕산 010-3861-4521
	전산	박상순	010-6273-0072 (FAX : 3273-5297)	전산	박상순 010-6273-0072 (FAX : 3273-5297)
	영상	정명현	010-9072-3745	영상	정명현 010-9072-3745
	음향	최용준	010-8665-2603	음향	최용준 010-8665-2603
	목양실	김정선	010-8288-5031 (FAX : 070-8884-3125)	목양실	김정선 010-8288-5031 (FAX : 070-8884-3125)
청장년진	A관 관리	우경원	010-7766-6396	A관 관리	우경원 010-7766-6396
	C관 관리	이상일	010-7444-2996	C관 관리	이상일 010-7444-2996
	D관 관리	진병이	010-3955-9138	D관 관리	진병이 010-3955-9138
	기도원	전상문	031-592-8385	기도원	전상문 031-592-8385
	식당관리	이정희	010-4109-1489	식당관리	이정희 010-4109-1489
	경비실		070-4264-9350	경비실	
	전기	장준호	010-8640-9514	전기	장준호 010-8640-9514
	설비	남상준	010-4931-3593	설비	남상준 010-4931-3593
	설비	이승진	010-7770-2196	설비	이승진 010-7770-2196
	설비	이홍호	010-2596-0418 (FAX : 070-8848-3125)	설비	이홍호 010-2596-0418 (FAX : 070-8848-3125)
청장년진	신교사	전병두	일본 81-90-8116-9372	신교사	전병두
	박미진	대만 886-912-203-824	박미진	대만 886-912-203-824	
	안성권	미안마 010-2251-3749	안성권	미안마 010-2251-3749	
장년진	3진	김철목사	010-8485-0069	3진	김철목사
	1진	고석창목사	010-2834-7697	기관선교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선교동원가네트웍
	2진	전종국목사	010-2392-8061	기관선교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선교동원가네트웍
심방	3진	황근배목사	010-4003-8291	국내선교	이광현(영산교회) 이우근(제주토산교회)
	1부	엄영선전도사	010-9213-0506	해외선교	신홍식(태국) 정윤진(인·방·파)
	2부	이은희전도사	010-8940-0241	해외선교	오***(대만) 이영숙(일본)
캠퍼스	3부	김경희전도사	010-2735-7035	해외선교	월리엄김(동아시아) 이동현(미안마)
	1부	양석효목사	010-7581-8343	해외선교	임선희(나미비아) 남섭김(북)
	2부	김성현강도사	010-4739-8695		
협동목사	3부	서지민강도사	010-3401-0748		
	1부	신국원목사	02-3479-0330		
	2부	신용길목사	010-5113-9936		
	3부	전영민목사	010-4855-5838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1부: 김영윤목사 2부: 김수훈목사 3부: 황근배목사 4부: 김광은목사 5부: 이사무엘목사)

본문 로마서 12:6-13
제목 로마서강해(27) "신령한 은사(선물)"
현신기도 1부: 남재희집사 2부: 임두호집사 3부: 이윤석집사

주일 젊은이예배 설교 최성근목사

본문 디도서 2:11-14
제목 "은혜를 주시는 이유"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우윤환목사)

본문 마가복음 15:33-41
제목 마가복음강해(52) "찢어지는 휘장"

수요일예배 1부: 고석창목사

본문: 에베소서 5:15-17
제목: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
2부: 김현욱목사
 본문: 출애굽기 3:14
제목: "하나님의 이름"

금요일야예배 설교 송태근목사 (사회: 전종국목사)

본문 마가복음 8:14-26
제목 "맹인을 보게 하시다"

새벽예배 설교 월: 이홍우목사 화: 김수훈목사 수: 김철목사

목: 김중철목사 금: 강병희목사

Samil Church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GBS교안

2015. 1월 셋째주.

"한 몸 (one body in Christ)" 로마서 12:3-5

말씀과 나눔

바울은 "이 시대의 정신을 좇지 말고 변화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라며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새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특히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마음' 일까요?

- (관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3b: 마땅히 생각할 ()을 품지 말라
 3c: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지혜롭게 생각하라
- (관찰)** 바울은 이와 비슷한 경고를 이미 앞 뒤 단락에서 합니다. 11:20, 12:16을 찾아 빈칸을 채워봅시다.
 11:20b 너는... ()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2:16a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을 두지 말고
- (나눔1)** 가끔 자질이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이름으로 무리하게 일을 맡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낙오자로 취급하고, 자신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좀 더 나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멤버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마음'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종교적 열심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여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반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공동체가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포용하며 인정하는 넓은 마음가지는, 왜 더 중요한 것일까요?

- (관찰)** 바울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모인 모임(교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a: 우리가 ()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5a: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되어 서로 ()가 되었느니라
- (관찰)** 바울의 '한 몸 사상'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 빈칸을 채워봅시다. 고전12:12-26 ()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의 지체가 많으나 ()임과 같이 ()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으로 세례를 받아 ()이 되었고 또 다 ()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에 두셨으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은 하나라... 더 약하게 보이는 ()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 (나눔2)** 이 시대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입니다. 이로 인한 갖가지 폐해 때문에 협업과 상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철학적 관심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교회는 더욱 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도 맞물리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2015년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가 표어 구절입니다. 여전히 경쟁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J. Banks)는 그의 책 '바울의 공동체 사상(Paul's idea of community)'에서, [바울의 공동체관은... 반문화 그룹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자극해 왔다. 이 공동체관은... 셀 그룹이나 은사 중심 모임들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확실히, 바울의 공동체 사상 이면에 깔려 있는 원리들은 1세기에 그렸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여전히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것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뱅크스의 통찰력 있는 분석처럼,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신학'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자극하고 새롭게 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몸 된 공동체'의 정신과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